

장백산천지

제 305 호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어두움을 뚫고 ——18 주년 '7·20'에 쓰다



1999년 7월 20일, 중국은 가장 어두운 밤 속으로 빠져들었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정의와 사악의 싸움은 사람의 넋을 뒤흔들었다. 세계는 불굴의 정신, 신앙의 힘, 정의의 응집력을 실증했다. 돌이켜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없는 노정이었고, 웅장하고 도도한 한 수의 서사시였다. 6천 5백여 일의 낮과 밤에 용기의 고상함을 적었고, 사악의 비열함을 통찰했다.

18년 전, 중국공산당 장쩌민 무리는 파룬궁 신앙단체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하룻밤 사이에 정세가 돌변하면서 거짓말로 시작한 모함이 온 천지를 뒤덮었고, 원한을 일으키는 선전은 연속 되었다. 바른 믿음은 탄압당하고, 좋은 사람은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시비가 전도되어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따듯한 평화 시기에 5천 년의 문명을 가진 동방고국에서 비극의 피눈물이 부침하고, 참렬한 진상이 '양호한 교육'과 '인권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가상 속에 덮어 가려졌다.

이 한차례 박해는 선과 악의 분수령마냥 선량이 강권에 대항하고, 정의와 사악의 대결이 물욕이 흘러 넘치는 인간세상에서 펼쳐졌다. 18년이 지났지만 파룬궁은 여전히 견고하게 우뚝 솟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전해졌다. 중국공산당은 사면초가이며 궁지에 빠졌다. 파룬궁수련생들의 평화로운 방식으로 폭력에 맞선 싸움에서 표현되는 견지와 기적은 세인을 놀라게 했다.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궁극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했다.

또 한 번의 '7·20'이다. 박해가 끊지 않으면 항쟁은 계속된다. 신앙의 자유, 진실을 말할 자유, 푸른 하늘 아래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권리, 풀밭에서 연공 할 수 있는 권리, 생활 중에서 '真, 善, 忍(찐, 쌈, 런)'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하루 또 하루, 파룬궁수련생들은 견지하고 있다. 이런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밟힌 많고 많은 존경하는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해마다, 촛불이 붙어졌고, 그리움을 전달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의 바른 믿음, 견정한 참음과 선량은 가장 깊은 어두움을 깨뚫고 가장 아름다운 서광을 떠받들었다. ◇

[명후이왕] 1999년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수련생을 참혹하게 박해한지 이미 18년이 된다. 그 속에서 중국대륙과 전 세계 파룬궁수련생들은 이 한차례 신앙을 짓밟은 참혹한 박해에서도 불요불굴하며 평화적인 항쟁을 견지했다. 갈수록 많은 민중들이 진상을 요해하게 되었고, 파룬궁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강대해졌다. 올해 7월 20일은 파룬궁 반박해 18주년이다. 근일에 전 세계 파룬궁수련생들이 분분히 집회와 대행진을 거행해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제지하고, 박해 원흉 장쩌민을 법적 처리 할 것을 호소했다. ◇

'7·20' 18주년 전 세계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제지 할 것을 호소

미국 워싱턴



파룬궁 박해 책임자가 미국 입국 시 제재에 직면할 것

[밍후이왕] 미국 '전 세계 매그니초키 인권책임 법안'은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 각급 관리들로 말하면 불리한 소식이다.

미국 '전 세계 매그니초키 인권책임 법안'이 2016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국회의 비준과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정식 서명을 받은 후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국 정부에 권한을 부여해 전 세계에서 인권을 위반한 자와 부정부패한 자를 제재하는 것이다. 주요 제재 조치로는, 미국 비자 발급자격을 취소하고, 이미 받은 미국 비자를 취소하며, 미국 경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 자신이 미국 경내에서의 교역을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집행 기관은 미국국무부 산하의 민주인권과 노동부이다.

2017년 4월 20일, 미국 현임 대통령 트럼프는 '전 세계 매그니초키 인권책임 법안'의 상황에 관해 미국 국회에 편지를 보내고 실현 상황 보고서를 넘겼다. 트럼프는 편지에서 이 보고서는 이번 미국 정부가 이 법에 대한 지지 및 그에 대해 전면적이고 유력하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편지에는 미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실체 증거를 수집하고 인권 침해자와 부정부패 인물을 추궁할 것이라고 표명했



■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일부분 파룬궁수련생들은 미국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시 중지 할 것을 요구했다. (2011년 7월 14일)

다.

1999년 7월 이래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인권 재난이다. 박해는 전체 사회에 재앙을 주었다. 맹후이왕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4,103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받아 사망했고 수십만 명, 심지어 더 많은 선량한 수련자가 불법적으로 판결, 수감됐으며 수많은 가정이 박해 받아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더 엄중한 것은 중국공산당은 또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강제 적출해 폭리를 취했다.

그때 장쩌민이 법률을 무시하고 권력으로 이번 박해를 발동했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아무런 법률 근거가 없다. 중국 현 법률에 근거해도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출곧 합법적이다. 장쩌민은 각급 관리의 박해 참여를 추

진하기 위해 그들이 부패하도록 부추겨 중국에 전례 없는 부정 부패한 관료사회를 만들었다. 적극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 많은 관리들은 아주 부패하다. 그들은 인권 범죄자이자 또 부정 부패한 자이다. 그들 중 일부 사람은 부정부패로 얻은 불법수입을 비밀리에 미국 등 서방으로 빼돌렸다

'전 세계 매그니초키 인권 책임 법안' 실시에 호응하기 위해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공산당 악인의 관련 범죄 사실을 수집, 정리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와 협작해 미국 국무부에 일부분 중국공산당 인권 악인 명단을 제공했다. 해마다 명단을 갱신할 것이다. 명단에 들어간 중국공산당 인권 범죄자들은 '전 세계 매그니초키 인권 책임 법안'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

포르투갈 파룬궁수련생들이 장더장을 법적처리할 것을 요구

[밍후이왕] 현임 중공정치국상무위원 장더장은 파룬궁을 박해한 주요 범죄자 중 하나다. 2017년 7월 12일 오전 10시 경 장더장은 포르투갈 리스본 총통부를 방문했다. 당시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총통부 앞에서 ‘장더장을 사법처리하라’, ‘파룬궁수련생 생체장기적출, 천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등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장더장은 줄곧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했다. 저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의 재임 중 대대적으로 박해 정책을 실시했으며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파룬궁을 탄압했다. 해당 지역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엄중하게 박해 당했으며 장더장은 집단 멸종죄, 혹형죄, 반인류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파룬궁을 박해한 일체의 죄악을 철저히 추적 조사할 것이며 관련한 기구와 조직은 물론 개인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든 또 어디까지라도 기필코 철저하게 추적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파룬궁수련생들은 포르투갈 리스본 총통부 앞에서 파룬궁박해 주요 죄범중의 한명인 장더장의 방문에 항의했다.

변호사: 장쩌민 고소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기에 고소인을 탄압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밍후이왕] 근일, 대륙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여러 명 파룬궁수련생이 부동한 형식의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여러 변호사는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표시했다.

여러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해 탄압을 받다

근일에 밍후이왕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장쩌민을 고소해 탄압당한 여러 개 사건을 보도했다.

2017년 6월, 지린성 지린시 촌잉구의 파룬궁수련생 자슈루(賈秀茹) 노인은 법에 의해 장쩌민을 고소했는데 현지 경찰은 거짓으로 노인을 모함해 검찰에 넘겼다.

근일,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파룬궁수련생 장순센(張順先) 노인은 법에 의해 장쩌민을 고소했는데 불법 2년 형을 받았다.

장순센 노인은 2016년 4월에 납치돼 지금까지 불법 감금되어 있다.

2015년 5월 중국공산당 최고법원은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를 하면 반드시 수리한다.’라는 새 규정을 내렸다. 2016년 10월 25일까지 근 21만 명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전 우



두머리 장쩌민은 국가기관 전체를 협박해 ‘진선인(真、善、忍)’을 신앙하는 파룬궁 단체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다. 이 한차례 박해는 오늘까지 이미 18년간 지속돼 헤아릴 수 없는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받아 불구로 되고, 사망했으며, 수많은 가정이 뿔뿔이 훑어지고, 가정이 파산되고 사람이 죽었다..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고소인을 탄압하는 것은 중국 ‘헌법’을 위반한다.

중국 ‘헌법’ 제 41 조에는 “공민의 고소, 고발 또는 신고에 대해 관련 국가 기관은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처리해야 한다. 누구든지 압제와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동난대학(东南大学) 법학교수 장잔닝(張贊寧)은 “장쩌민 고소를 입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쩌민

을 고소한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법치국가가 아니고, 영도자의 권리가 법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표시했다.

대만대학 법학과 교수 세밍양(謝銘洋)은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중국헌법 35 조부터 37 조까지에 언론, 종교자유, 법적 절차가 없이는 체포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행정명령으로 파룬궁을 진압했기에 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장쩌민에 대한 파룬궁수련생의 고소에 대해 미국뉴욕 인권변호사 예닝(叶宁)은 “이는 역사의 한 기회이다. 양지가 있는 인류사회의 매성원은 장쩌민을 고소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장쩌민이 파룬궁박해에서 집단 멸종죄, 고문죄와 반인류죄 3 가지 국제 공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런 죄는 모두 국제공약에 문자로 금지됐으며, 그리고 징벌해야 하는 국제 범죄 종류이다. 세계 각국에서 모두 관계해야 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두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

은혜에 대한 형의 감사

[밍후이왕] 나와 어머니는 노 제자이다. 형은 한 번도 우리의 수련을 반대하지 않았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심태가 좋다고 여겼으며 어떤 일이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

형의 위치는 다년간 좋지 않았으나 병원 검진을 미루어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몰랐다. 형은 좋지 않은 병으로 진단될 것 같아 두려워했다.

2011년 어느 날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형이 지금 병원에 있으며 곧 수술할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잠시 기다릴 테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형과 형수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의 안색은 암울했고 손은 배를 누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CT 사진을 보고 말씀하셨다. “수술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법공부하자.” 형이 말했다. “의사에게 선물까지 드렸고 의사가 기다립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암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수술하면 위장의 3분의 2를 잘라내야 한다. 몸이 원래 좋지 않아 회복되지 않을지도 몰라. 대법이 구해줄 것이라 믿어라.” 형수가 거들었다. “이렇게 큰일에 저는 정말로 확신이 없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나이가 드셨으나(곧 여든) 연공 후 이렇게 좋아졌으니 어머님을 믿을게요.” 그러자 형은 수긍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는 형 내외와 함께 ‘전법륜’을 읽었다. 3일을 공부하고 어머니는 다른 일로 돌아가시면서 형에게 계속 공부하며 책을 끝까지 다 읽을 것을 당부하셨다. 얼마 후 형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음.) 자신은 지금 출장 중이며 쓰촨에 있는데 살이 올라 무엇을 먹든지 맛있다고 했다.

2013년 상반기에 형은 버스를 타고 베이징에 갈 때 중간 위치에 앉았다. 갑자기 버스가 사고가 나면서 가운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밖으로 튕겨나갔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로서 응급차량이 끊임없이 사람을 실어 날랐다. 형은 갑자기 발생한 일로 정신이 얼떨떨했고 안경도 없어졌고 핸드폰도 사라졌다. 구급인원이 그를 구할 때 팔꿈치에만 조금 상처가 있었고 안경, 핸드폰을 모두 찾았다고 했다.

형은 집에 들어서더니 첫마디가 이러했다. “오늘 덕을 봤어. 파룬따파는 좋아. 파룬따파가 없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그 대형 버스에 탄 승객 대부분이 참혹하게 상처를 입었는데 나만 괜찮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파룬따파는 좋다!”

그래서 내가 “그럼 계속 ‘전법륜’을 읽을 거야?”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나는 단지 위험할 때 ‘파룬따파하오’를 외쳐야 함을 기억할 거야. 시간만 나면 ‘파룬따파하오’를 묵념할 거야. 그 은혜는 영원히 감사해야해, 파룬따파가 나를 구했어.”

하지만 사촌여동생은 대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동생은 같은 달에 대형 버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병원에 반년동안 입원했으며 앞가슴과 목, 몸과 연결되는 곳에 12cm 크기의 수술자국이 생겼다. 몇



년이 지났으나 반응이 느리고 머리를 돌릴 때 몸도 함께 돌아갔다.

형은 아는 사람들이 파룬궁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으면 자신의 경험과 파룬따파는 좋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 글/ 허베이 대법제자 엔엔



옌 벤 박해소식

◆지린 옌볜 둔화시 대석두 림업국 610과 국보대대 파룬궁수련생을 소란하다

2017년 6월 중순부터 지린 옌볜 둔화시 대석두 림업국 610과 국보대대는 연이어 본지 파룬궁수련생에게 묻고 집을 수색했다. 신분증과 의료카트, 또 퇴직한 파룬궁수련생의 공자 카드를 빼앗아 갔고, 손도장을 찍고, 서명하게 했다. 대석두 림업국 직공인 파룬궁수련생 투징친(崔景琴)이 불법으로 납치됐다.

◆지린성 옌볜파룬궁수련생 황자전이 소란 당하다

옌볜 파룬궁수련생 황자전(黃家珍)은 부친이 사망해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가 부친의 장례를 치르려 했다. 2017년 6월 6일 정심 11시 46분 옌지기자역전에서 나올 때 5~6명 사복경찰에게 끌려 하남파출소로 갔다. 류씨라고 자칭한 키가 작은 경찰이 책임자였는데, 경찰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 중 추씨 경찰이 옌지 공안국 경찰증을 내보였다. 악인들은 황자전의 갖고 있던 여행용 가방을 뒤져 P5, P6, 녹음 재생기와 본인의 고소장을 불법 수색해 갔다. 기차에서 맞은편에 앉았던 임업경찰이 고발했다고 하면서 황자전을 불법으로 심문했는데 심문인원은 옌지시 국보대대라고 자칭했다. 그들은 집식구들이 사람을 급히 집에 데려가 장례식을 치르려는 심정을 이용해 가족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내라고 하고는 2000 위안의 구류보증금을 내게 한 다음 먼저 집에 가 장례식을 하고 다시 돌아와 15일 구류한다고 했다. 돈을 받은 영수증은 주지 않았다.

6월 8일, 황자전과 가족은 옌지시 하남 파출소에 가서 알아보고 류씨 경찰을 찾아 개인물품 및 보증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당직 민경은 옌지시 국보대대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옌지시 국보대대에로 가보니 다만 류씨 경찰 밖에 없었으며 근본 6일에 있었던 경찰이 아니었다.(610 인원 혹은 국가안전 특무로 의심된다.)이로부터 볼 수 있는 바 그들은 위법인줄 똑똑히 알고 있기에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